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감성과 스토리가 담긴 세종시의 ‘삶’ 영상 제작

2016. 10. 22

권도훈, 김균서, 김석희, 권도혁, 김태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감성과 스토리가 담긴 세종시의 ‘삶’ 영상 제작

권도훈, 김균서, 김석희, 권도혁, 김태훈

1. 탐사의 필요성

가. 탐사 동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입학한 지 2학년은 2년, 1학년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꽤나 오랜 시간 세종시 시민으로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세종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세종시에는 어떠한 경관들이 있는지, 어떤 자연과 아름다움이 있는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인문자연탐사 기간 동안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시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홍보 영상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다.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모습, 즉 ‘삶’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고, 도시 개발 계획에 드러나는 내용과 쉬이 와닿지 않는 내용들 위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시가 옛날 농촌에서부터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화된 과정을 알면 세종시를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세종시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우리는 세종시민들의 모습과 생활, 즉 ‘세종시의 삶과 기억’을 담은 또 다른 시각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나. 문제 접근

1) 사회 문화적 영역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관찰한다. 기존 홍보 영상들에서 보이는 딱딱하고 시설, 계획 중심적인 모습 보다는 세종시의 옛 모습으로부터의 변화 과정과 감성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사람 사는 도시’로서의 세종의 모습을 알리고,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상에 담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세종시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사람 사는 세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2) 예술적 영역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 영상에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타임랩스 (TimeLapse-저속 촬영해 정상 속도보다 빨리 돌려서 보여주는 특수 영상기법)’와 같은 영상 기법들을 활용하여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 즉 영상미(映像美)를 더욱 부각하여 영상을 제작한다. 또한 영상에 음악을 입혀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청각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도록 영상을 구성한다.

2. 탐사 과정

가. 탐사 준비물

1) 촬영 장비

카메라 5대(NX20, 5D Mark 3, 6D, D90, D5000), 캠코더 3대, 삼각대 6대, 인터벌 릴리즈, 타임랩스용 회전 헤드

나. 탐사 방법

우리가 직접 세종시를 돌며 세종시가 옛날로부터 변화된 과정을 중심으로 영상에 세종시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 촬영했다. 이 후 촬영한 자료를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했다.

1) 1일차에는 세종시민이 되어 자유롭게 세종시를 돌아다니며 탐사했다.

2) 1일차 저녁, 학교에 돌아와 자유 관람을 마친 후에는 세종시 전역을 돌아보며 느낀 점,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영상의 스토리 보드(storyboard)를 구성했다.

3) 2일차에는 구성한 스토리 보드에 맞게 인상 깊었던 장소와 영상에 담을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4) 3일차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베가스, 프리미어)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보고서와 발표자료, 포스터를 제작했다.

나. 탐사 일정

1) 1일차: 자유 탐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행복도시 세종홍보관 ▶ 세종 호수공원 ▶ 대통령 기록관 ▶ 중식 ▶ 푸른뜰 근린공원 ▶ 국립세종도서관 ▶ CGV 세종 ▶ 석식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 2일차: 사진 및 영상 촬영

1팀(권도혁, 권도훈, 김석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 밀마루 전망대 ▶ 중식 ▶ 호수공원 뒤편 논 ▶ 세종 호수공원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팀(김태훈, 김균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 밀마루 전망대 ▶ 중식 ▶ 학나래교 ▶ 해피라움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일차 탐사 경로>



<2일차 1팀 탐사 경로>



<2일차 2팀 탐사 경로>

3) 3일차: 마무리 및 제작

영상 편집 프로그램(베가스, 프리미어)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1일차에 완성한 스토리보드와 테마를 바탕으로 구성하며 적절한 배경음악을 선정하여 영상 구성에 참고했다. 보고서와 발표 자료, 포스터를 제작했다.

3. 탐구 결과

가. 시나리오

장면 번호&설명	자막	장면 번호&설명	자막
S#1 검은색 화면	이 이야기는/저의 성장과정을 담은/이야기입니다	S#14 공사장 2	예쁘게 꾸미고 가꾸며
S#2 걸어가는 아이	또한/제가 품은 사람들에 대한/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의 저는/항상 자연과 함께 했습니다	S#15 공원 하룻길	점점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S#3 과거 세종시 위성사진	사람들의 때문에 손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자연 속에서	S#16 걸어가는 어른	그로부터 몇 년, 지금의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죠
S#4 물결	맑고 깨끗한 물을 가진 강과	S#17 국립세종도서관	중요 행정업무들을 위한 정부청사가 세워졌습니다.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도서관도 생겨났습니다
S#5 시냇물	마찬가지로 맑고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S#18 호수공원 반영	넓은 호수를 가진 자랑스러운 공원도 지어졌습니다
S#6 안개	아침의 안개와 함께하는 나무들과	S#19 아파트 야경 1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많은 아파트들과
S#7 공원 강아지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풀들과	S#20 수상무대섬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수상무대
S#8 장남 평야 1	황금빛으로 물든 드넓은 논들과 함께 했습니다.	S#21 방축천 음악분수	밤이면 음악과 함께 춤추는 아름다운 음악분수도 생겨났죠.
S#9 장남 평야 2	그랬던 제가 점차 성장하게 된 것은/함께 있었던 사람들 덕분이겠지요	S#22 아파트 야경 2	이젠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살아갑니다
S#10 걸어가는 학생	제가 점점 성장하며 주위사람들은/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S#23 학나래교	그렇기에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S#11 교차로 1	장차 대한민국의 심장이 될 행정수도의 건설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S#24 해피라움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S#12 공사장 1	결국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S#25 검은색 화면	저는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S#13 교차로 2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었을 겁니다	S#26 크레딧	-MEMORIES-

나. 영상

- 1) 제목: Memories
- 2) 길이: 3분 27초
- 3)



4. 결론 및 제언

세종시 탐사를 통해 세종시의 ‘삶’과 ‘기억’을 나타내는 영상을 만들었다. 기존의 홍보영상에 비하여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기존의 홍보영상에 부족했던 감성과 스토리를 넣어 세종시의 삶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에 할머니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깊은 여운을 남기고자 하였지만 할머니 섭외에 실패하여 우리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

5. 활동 후기

권도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다니고 세종시에 살면서 세종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답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또한 세종시의 삶과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푸른뜰 근린공원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의 해맑은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세종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조원 간에 팀워크도 쌓을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김균서: 세종 시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 세종 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종 시에 대해 몰랐던 점이나 뜻밖의 아름다움 등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세종 시의 도시, 공사장, 논 등등 다양한 경관을 모두 돌아다니고, 영상의 스토리보드를 짜는 과정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세종 시 홍보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세종 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다. 여러 모로 내게 도움이 된, 보람찬 시간이었다.

김석희: 지난 3월 입학한 이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생활하면서도 진짜 세종시의 면면들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3일간의 인문자연탐사 과정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세종시의 숨겨진 삶과 아름다움들을 찾아보는 활동은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다. 영상 컨셉 결정, 스토리보드 작성, 영상 촬영, 영상 편집까지의 인문자연탐사 모든 과정을 조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분담하여 조원들 간의 사이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 특히 평소 관심 있고 즐기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주제로 인문자연탐사 활동을 이어나가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었으며,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다.

권도혁: 기숙사와 학교를 오가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이렇다 할 경험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우리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마침 이번 인문자연탐사는 세종, 행복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친구들에게 세종시에 대해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조원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세종시를 담기로 하였다. 우리가 3일 동안 촬영한 세종시는 세종시민의 삶, 그대로였다. 세종시의 발전과정을 담은 영상 속에 항상 세종 시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세종을 표현하기에 매우 좋은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합이 잘 맞는 조원들과 강동욱 선생님과 함께한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다. 우리가 결정한 주제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김태훈: 세종시에서 지낸지도 2년이 다되어가고, 나름 학교를 오가며 여러 장소들을 보아 세종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인문자연탐사 과정 중 세종시의 과거들에 걸맞는 모습들을 찍기 위해 찾아다녀 보니 단순히 도시의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모습들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밀마루 전망대, 호수공원, 옥상정원 등등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각 명소들의 장단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차후 세종시의 발전과 부흥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들었다.